



보도 일시	2022. 11. 23.(수) 12:00 (목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11. 22.(화)
담당 부서	자원순환국 1회용품대책추진단	책임자	과 장 김남희 (044-201-7417)
		담당자	사무관 황남경 (044-201-7414)

행동변화 유도형 ‘일회용품 줄여가게’ 캠페인 실시

- 참여형 계도로 소비자·사업자의 자율적 동참 강화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‘일회용품 줄여가게’를 추진한다.
 - ‘일회용품 줄여가게’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뀌어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.
- 캠페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,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- 첫 번째는 무인주문기(키오스크),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.
 - 두 번째는 매장에 빨대,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, 이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.
- 이번 ‘일회용품 줄여가게’ 캠페인은 개별 매장뿐만 아니라 대형가맹점 (프랜차이즈)에서도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.

-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또는 대형가맹점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(recycling-info.or.kr)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,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을 이행하면 된다.
-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캠페인 시행에 맞춰 자원순환 실천플랫폼을 개편했으며, 일회용품 줄이기 제도 안내와 더불어 캠페인 참여 방법, 이행사항, 기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전화 상담실(1660-1687)도 운영한다.
- 환경부는 유역(지방)환경청, 지자체,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여 식품접객업, 종합소매업 등의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독려하고, 국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- 한편, 환경부는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,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을 시행하며, 1년 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한다.
- 식품접객업*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, 도·소매업**의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집행된다.
- * 음식점, 커피전문점, 패스트푸드점 등 ** 서점, 약국, 의류판매점 등
-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“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라면서, “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캠페인 홍보물. 끝.



